

한국 의식주 문화 관련 용어의 베트남어 · 인도네시아어 · 태국어 번역 및 표기 양상 연구 —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 *

이 두 용 · 박 지 민 · 홍 세 화 · 이 정 희
(고려대 · 경희대 · 경희대 · 경희대)

1. 서론

2000년대 들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국의 드라마, 가요, 영화 등 한국 대중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류’라는 용어가 보편화되었다. 한국의 대중문화는 나날이 전 세계인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영화 「기생충」이나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 다수의 오티티(OTT) 플랫폼 콘텐츠가 상위권 시청률을 기록한 바 있고,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은 계속해서 세계적인 관심의 중심에 서 있다. 그리고 한국의 휴대폰, 자동차 같은 첨단 제품 외에 김치, 비빔밥 같은 한국의 전통 음식도 각광을 받고 있으며 관광, 유학, 취업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을 찾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 이 연구는 국립국어원이 주관하는 2022년 한국어-외국어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과제 번호: B0080627001050)이며,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53차 국내 학술 대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수정 · 보완한 논문임.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만큼 한국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제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 사이트라면 더욱 그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훈령으로 2015년 ‘공공 용어의 영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2020년에는 중국어와 일본어로 확대한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2021년 개정)’을 마련했다. 이는 한국어 공공 용어에 대한 번역과 표기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번역 및 표준화된 번역 용어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영어·중국어·일본어 번역만을 다루고 있어 더욱 다양한 언어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¹⁾ 특히 최근 급증하는 아세안 국적 관광객과 입국자²⁾를 고려했을 때 아세안 언어를 위한 번역 및 표기 지침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 용어 번역 및 문화 관련 용어 번역에 관한 선행 연구는 대부분 영어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 외에 중국어, 아랍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등에 대한 연구도 찾아볼 수 있었으나 아세안 언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공공 용어의 영어 번역 및 표기 연구로 최희섭(2008)은 광한루원의 영어 안내판을, 심보경(2018)은 서울시 강남구 도로 표지의 영문 표기를, 양병선·김셋별(2019)은 전북 지역의 관광 관련 영어 표기를 연구하였다. 양병선(2020)은 전주 시 영문 관광 소재자가, 정호정·최소희(2020)는 온라인 용어 사전들이 2020년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에 맞게 표기됐는지를 분석하였다. 영어 외 연구의 경우, 김혜림·신지선·조영주(2014)는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영어·중국어·일어로 번역된 문화용어의 실태 등을 조사하고 번역 방안을 제안하였다. 김혜림·장애리·강려영(2016)과 김혜림·강경이·신다영(2019)은 각각 공공기관 사이트와 한국 관광 안내 자료의 중국어 표기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김재희(2008)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아랍어판 계간지 내 문화 관련 어휘 번역을 연구했고, 조정민(2021)은 코리아넷 아랍어 사이트의 문화소 번역 전략을 연구했다. 최병

-
- 1) 문화체육관광부(2022: 32)의 제4차 국어 발전 기본 계획에 따르면 공공 용어 표준 번역 대상 언어를 인구 또는 교류가 많은 국가 언어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 2) 문화체육관광부의 외래 관광객 조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세계적 확산 전인 2019년의 한국 입국자 수는 16,102,864명이었다. 국적은 중국, 일본, 대만, 미국 순으로 많았으며, 최근 태국(6위), 베트남(7위), 말레이시아(8위), 인도네시아(13위) 등 아세안 국적의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진(2010)은 독일인이 번역한 한국 문학 작품의 문화 고유적 어휘의 번역 유형을 살폈으며, 임순정(2014)은 해외 홍보물의 문화 고유어에 대한 프랑스어 번역 실태를 조사했다. 이처럼 영어 및 일부 주요 언어의 번역과 표기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아세안 국가 언어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한국의 공공 용어 또는 문화 관련 용어를 아세안 언어로 번역 및 표기한 것에 관한 실태 조사와 양상 분석 연구가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문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사이트 중 동일 한국어 원문 텍스트를 아세안 언어(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로 번역한 제주관광공사 사이트의 번역 및 표기 양상을 조사, 분석하여 향후 공공 용어 번역 지침의 대상 언어 확대 마련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한국 의식주 문화 관련 용어의 번역 및 표기 과정에서 사용한 번역 전략이 맥락상 적절했는가?
- (2) 한국 의식주 문화 관련 용어가 각 언어 내에서 일관되게 번역 및 표기되었는가?
- (2) 한국 의식주 문화 관련 용어를 베트남어와 인도네시아어의 로마자나 태국어의 태국 문자로 음역 표기할 때 공식적인 규정을 준수했는가?

제주관광공사 사이트에서 한국 문화 관련 용어를 모두 추출하고 주제별로 분류한바, 의식주 관련 문화가 보편적이고 친숙하면서도 그 문화권의 고유성을 잘 드러내는 주제라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당 주제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기타 주제는 후속 연구로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음식명 등을 음역할지 의미역할지의 판단은 어떤 번역 전략 사용이 맥락상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것과 연결되기에 첫 연구 질문은 한국 의식주 문화 관련 용어의 번역과 표기 과정에서 맥락상 적절한 번역 전략을 사용했는지로 설정하였다. 한편 동일 용어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번역과 표기가 중요한데 사전 조사에서 일관성이 매우 부족함을 확인하여 이를 두 번째 연구 문제로 설정하였다. 각 언어 내 일관성을 중점으로 분석하고, 동일 한국어 원문을 다국어로 번역한 만큼 세 언어 간 일관성도 부차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구 질문은 공공기관 사이트로서 세 언어의 문자로 음역 표기할 때 자국의 공식적인 규정을

준수하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를 바탕으로 2장에서는 문화 관련 용어의 개념과 번역 전략에 대해 알아보고, 3장에서는 분석 대상 선정 과정 및 연구 방법에 대해 설명한 뒤, 그 결과와 해석을 4장에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종합하고, 연구의 의의와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2. 문화 관련 용어의 개념 및 번역 전략

2.1 문화 관련 용어의 개념

번역에서 문화 관련 어휘(culture-bound terms)는 번역행위를 문화 간 구성원들의 원활한 의사소통 행위로 보고 번역행위의 문화적인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출현하게 되었다(김재희 2008: 29). 여러 연구와 김혜림(2019)에서도 언급했듯이 문화 관련 용어의 개념과 명칭은 다양하다. 문화 어휘(cultural word)(Newmark 1988: 94), 문화 특정 개념(culture-specific concepts)(Baker 1992), 문화와 밀접한 상관어(이근희 2003), 문화용어(김혜림 외 2014)를 비롯해 문화소, 문화적 지시체, 문화 고유어 등으로도 불린다.

구체적인 정의 역시 조금씩 다른데 디아스신타스와 레마엘(Diaz-Cintas and Remael 2007: 200)은 문화 관련 어휘(culture-bound terms)를 출발 문화권의 특정 개념, 제도, 또는 인물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 정의했다(이지민 2015: 139 재인용). 이근희(2003: 7-8)는 ‘문화와 밀접한 상관어’라 부르고 “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공동체의 고유한 사회·문화로부터 비롯되는 특정 어휘나 언어사용 관습”으로 정의하고 6개 범주³⁾로 구체화했다. 권인경(2013: 39)은 문화소를 “문화적인 특수한 어휘뿐만 아니라 한 사회에서 지니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서 사용하는 언어적 관습과 표현”으로 정의하였다. 이상빈(2017: 85-87)은 문

3) 6개 범주는 (1) 고유명사, (2) 특정 문화와 관련된 어휘(의식주, 지역, 사회 관습 등에 관한 어휘), (3) 특정 사건이나 인물과 관련된 어휘, (4) 관용어, (5) 도량형 단위, (6) 언어사용 관습에서 비롯되는 표현(직위와 인명의 동시 표현, 낱짜 표기 방법 등)이다.

화 특정 항목은 문화와 관련한 개념으로서 다른 문화권에서 동일 개념이나 요소를 찾기 힘든 경우에 사용하는 어휘로서 의복, 인물, 교육, 방송, 경제, 지명 등과 같이 문화의 다양한 하위 영역을 포함하는 용어로 설명하였다.

한편, 김혜림 외(2014: 27-29)에서는 한국 문화 관련 용어의 정의와 분류 체계를 설정하기 위해 여러 이론을 참고하고, 관련 사전과 공공기관 사이트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이에 한국 문화 관련 용어를 광범위하게 포괄할 수 있도록 ‘문화용어(cultural terms)’라 명명하고 “한국인의 삶 혹은 삶의 양식과 관련된 개념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문화용어 분류 체계는 주로 문화인류학과 번역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3가지로 재분류했는데, ‘심층문화’는 정신문화를 대표하는 것으로 민속신앙·철학·종교 등에 관한 용어로 구성됐고, ‘중층문화’는 역사, 정치·경제·사회·제도, 언어, 향토문화·상징, 세시풍속·의례 등에 관한 용어로 구성됐고, ‘표층문화’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의식주 등의 생활문화, 대중문화, 전통예술, 문화유산, 관광 관련 용어 등으로 구성됐다고 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용어와 정의가 있지만, 광의적으로 보면 공통적으로 문화와 밀접한 특정 어휘나 공동체 안에서 언어사용 습관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문화를 드러내는 용어를 다루었으므로 명칭을 ‘한국 문화 관련 용어’로 통일하고, ‘한국 고유 문화에 밀접하게 상관된 한국어 어휘’로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2.2 문화 관련 용어의 번역 전략

번역은 상호 문화 간의 의사소통적 작업이다. 서로 다른 문화 간에 의미를 전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적 전달 과정에서 언어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번역의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번역자는 번역 전략(translation strategies)을 취한다. 번역 전략으로는 베누티(Venuti 1995)가 제시한 자국화(domestication) 전략과 이국화(foreignization) 전략이 대표적이다. 그에 따르면 자국화 전략은 도착어 독자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착어 문화와 관습에 맞게 언어적·문화적 장애를 제거하여 번역하는 전략이다. 반면 이국화 전략은 출발어의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여 외국어의 낯센과 문화적 요소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번역 전략이다.

아이셀라(Aixelá 1996)는 문화적·언어적 차이에 따른 번역의 난해함을 원문을 보존(conservation)하는 전략과 대체(substitution)하는 전략으로 분류하였다. 보존 전략은 원문의 원음을 그대로 차용하거나 주석이나 각주를 달아 설명하는 방식이다. 대체 전략은 도착어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동의어를 사용하여 번역하거나 보편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번역하고 출발어권에 없는 새로운 문화 관련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번역 전략이다. 이를 베누티(Venuti 1995)의 전략과 비교하면 대체 전략은 자국화 전략에 해당하고, 보존 전략은 이국화 전략에 해당하는 것으로 두 연구의 전략 분류는 일맥상통한다.⁴⁾

예컨대 ‘김치’는 제법 잘 알려진 용어이기에 출발어의 이국성을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이 자주 사용된다. 그런데 도착어 문화권에 존재하지 않는 고유 지명이나 음식명 등을 번역할 때 어느 전략을 적용하는 게 적절할지는 다각적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 다시 말해 문화 관련 용어를 번역할 때 언어 간극을 채우기 위한 번역 전략으로 출발어 그대로의 고유성을 보존하여 번역할 것인가, 아니면 독자의 이해용이성⁵⁾을 높이기 위해 도착어 문화에 맞게 번역해야 할 것인가는 목적과 상황, 맥락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민해야 한다.

한국의 공공기관 사이트에서도 한국 문화 관련 용어를 외국어로 번역 및 표기할 때 출발어인 한국어의 원음을 그대로 보존하여 번역할 것인가, 아니면 각 도착 문화에 적절히 수용되도록 의미역하여 번역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특히 관광 관련 공적 사이트라면 한국 문화의 고유성을 충분히 드러내면서도 문화 간 차이를 메우고 도착어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해야 할 것이다. 즉 문화 고유성과 이해용이성을 모두 고려하면서 정확하고 일관된 번역 및 표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표준화된 지침의 마련과 적용이 중요하다.

4) 그 밖에 발라르(Ballard 2001: 109-17; 임순정 2014: 178 재인용)는 문화 관련 고유어를 번역하는 방식으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출발어의 이국성을 보존하는 전사·각주·부연 설명 등이고, 다른 하나는 의미 전달을 중시하는 대체·어원으로 번역하기·상위어로 번역하기·등가어로 번역하기 등이다. 뉴마크(Newmark 1988)는 좀 더 미시적인 번역 기법(translation procedure)으로 12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5) 이해용이성(accessibility)은 텍스트 외적 요소의 영향을 배제하고, 텍스트에서 전달되는 정보의 의미를 독자가 과도한 지적 노력 없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텍스트가 구성되었는지에 관한 것이다(정호정 2008: 165).

3. 분석 대상 선정 및 분석 방법

3.1 분석 대상과 범위

분석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먼저 국내의 공공기관 사이트 중 한국 문화를 다국어로 번역하여 소개하는 곳들을 탐색했다. 그중 대사관과 한국교육원 사이트는 정보량이 매우 적거나 영어로만 제시되어 있어 제외했다.⁶⁾ 제주관광공사의 경우, 동일한 한국어 원문을 바탕으로 같은 주제·구성·맥락을 유지하면서 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태국어 등 다국어로 번역된바 언어 간 번역 및 표기 방식의 비교에도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제주관광공사 사이트는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제주도·제주 설화·제주 역사·의식주·민속 등 10개 범주로 나누어 제주를 소개했다. 사이트에 나타난 한국 문화 관련 용어는 총 207개 항목이 추출됐으며, 이를 주제별로 재구성하면 <표 1>과 같이 인명, 자연 지명, 인공 지명, 역사, 의식주 등 11개 범주로 정리할 수 있다. 용어의 번역 양상에 대한 사전 조사에서 인명이나 자연 지명은 음역이 많았고, 역사 용어는 의미역도 많은 반면, 의식주 용어는 음역과 의미역이 매우 혼재한 편이었다. 다시 말해 음식명 등은 문화 고유성 보존을 위한 타국화 전략으로서 음역을 사용하기도 하고, 독자의 이해용이성을 위한 자국화 전략으로서 의미역을 사용하기도 하는 등 맥락에 따라 다양한 양상이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 1>의 범주에서 항목 수가 많고 그 번역 양상이 다양하며, 한민족이 살아온 모습을 잘 드러내는 용어(김혜림 외 2014: 29)로서 문화 고유성이 짙으면서도 외국인들에게 친숙하고 보편적으로 수용될 주제인 의식주 문화 관련 용어에 한정하여 분석했고 기타 주제는 후속 연구로 진행하고자 한다.

6) 한국관광공사와 한국문화원 사이트의 경우 외국어 페이지마다 주제와 내용이 조금씩 달랐는데 이처럼 원문이 다르고 상이한 맥락에서 특정 용어가 제시되면 번역어 간 비교가 어려워지므로 제외했다. 한국관광공사는 다국어 페이지마다 한국어 원문의 내용과 맥락이 상이했고, 베트남과 태국의 한국문화원은 내용이 유사하나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만 내용을 영어로 제시하여 목표어 간 비교가 불가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제주관광공사 사이트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추후 분석 대상을 확대하고자 한다.

〈표 1〉 제주관광공사 사이트에 제시된 한국 문화 관련 용어

범주	주제	개수	항목
인명	역사적 인물	5	고종, 숙종, 원종, 최영, 김정희
	설화 속 인물	10	옥황상제, 천지왕, 설문대(창조신), 삼승(생명신), 가문장아기(운명신), 영등(바람신), 자청비(농경신), 고을나, 양을나, 부을나
국명	역사 속 국가	7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당나라, 몽고
	현대 국가	2	한국, 남한
	설화 속 국가	1	벽랑국
행정 구역	역사	4	삼읍,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현대	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조천읍, 대정읍, 안성리, 행원리
자연 지명	제주(도)	8	제주, 제주도, 탐라, 탐라국, 해상왕국, 삼무도, 삼다도, 여다의 섬
	섬	9	강화도, 진도, 마라도, 우도, 문섬, 범섬, 가파도, 추자도, 비양도
	산/오름	11	백두산, 지리산, 한라산, 산방산, 오름, 거문오름, 붉은오름, 새별오름, 성산일출봉, 수월봉, 성판악
	동굴/지질	7	서귀포층,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외돌개, 용암동굴, 용천동굴, 당치물동굴, 뽕뒤굴
	호수/폭포	2	백록담, 천지연 폭포
	해안/바다	2	용머리 해안, 동해
자연 별	별	5	견우성, 직녀성, 노인성, 북두칠성, 삼태성
	바람	9	갈바람, 높새바람, 높하늬바람, 동마파람, 셋바람, 셋하늬바람, 양두새바람, 양바람, 하늬바람
인공 지명	일반	21	위령광장, 위령제단, 위령탑, 대몽항쟁기념탑, 방사탑, 모녀상, 4·3 평화공원, 향파두리(성), 향파두리박물관,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 대몽항쟁유적, 추사유배지(추사적거지), 향교, 막숙, 돌담, 산담, 밭담, 원담, 울담, 올렛담
	방어 시설	14	읍성, 환해장성, 봉수, 연대, 9진, 화북진, 조천진, 별방진, 애월진, 명월진, 차귀진, 모슬진, 서귀진, 수산진
문화 유산	유적지	2	삼양동 선사 유적, 삼성혈
	예술 작품	1	세한도
역사	시대 구분	6	원삼국시대, 삼국시대,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현대 한국사
	전쟁	3	나당연합군, 삼별초, 목호군
	운동	5	3·1 운동, 조천만세운동, 제주항일, 법정사항일운동, 해녀항일운동

민속	시간	4	대한, 입춘,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 을축년 을축월 을축일 을축시
	신앙	18	당, 돈짓당, 본향당, 일뤼당, 포제(단), 심방, 굿, 일반굿, 당굿, 칠머리당영등굿, 탐라국 입춘굿, 신구간, 천황담, 지황담, 인황담, 삼성혈(삼성신화), 혼인지, 돌하르방
	기구	3	테왁, 가마솥, 장독대
의식주	의식	6	갈옷, 우장, 물옷, 물수건, 물적삼, 물소중이
	식	26	빙떡, 뽕떡, 팥토렴, 팥메밀국수, 팥만두국, 육포, 마육회, 마초밥, (말) 탕수육, (말) 갈비찜, (말) 구이, (말) 불고기, 회, 돛회, 갈치회, 전복회, 물회, 소라물회, 자리물회, 한치물회, 해삼물회, 전복회, 전복죽, 오분자기, 툇배기, 된장찌개, 삼계탕
	주	8	초가, 돛통시, 통시, 밖거리, 안거리, 정낭, 정주목, 올레
기타	직업/신분	1	해녀

3.2 분석 방법

제주관광공사 사이트에서 한국 문화 관련 용어에 대응하는 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태국어 번역 사례를 <표 1>과 같이 추출하였다. 구체적인 번역과 표기 양상이 다양하고 혼재되어 있었기에 음역과 의미역의 10가지 조합을 유형으로 제시한 김혜림 외(2014: 44-47)의 기준에 따르되 이국화와 자국화의 방향성에 따라 순서를 조정하여 <표 2>와 같이 재구성하였다. 다시 말해, 출발어의 발음을 도착어 문자로 음역하여 이국성을 드러내는 이국화 전략이 한 축이 되고, 도착어 문화권 독자가 출발어 의미를 이해하기 쉽도록 의미 전달에 중점을 두어 번역한 의미역은 자국화 전략으로 반대 축을 형성하며, 구체적인 유형들은 그 정도성과 방향성에 따라 배치하였다.

한국 문화 관련 용어가 세 언어로 번역될 때 어떠한 전략과 유형을 적용했으며 그에 따라 고유성 보존과 이해용이성이 맥락상 적절했는지, 아울러 동일 언어 내 일관성이 이뤄졌는지, 그리고 음역 표기가 세 나라의 공식 표기 규정

7)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도 외국의 인명·지명 등을 음역 표기하는 공식적인 규정이 있으나 언어별로 특화하기보다 여러 언어에 대해 일반적으로 규정한다. 이 기준들과 제주관광공사 사이트의 표기를 대조한 결과, 자국의 규정이 아닌 한국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오류가 발견되었다. 태국 왕립학술원의 한국어 표기 규정은 한국어를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바꾼 뒤 다시 태국 문자로 변환하는 방식이지만, 제주관광공사 사이트의 표기는 해당 규정을 정확히 준수하지

을 준수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표 2〉 문화 관련 용어에 적용된 번역 전략과 유형

전략	유형	설명	예
이국화 ↑	완전 음역 + (∅)	출발어 발음을 로마자 또는 도착어 문자로 음역한 경우	갈옷 Galot
	완전 음역 + 후부 요소 대응식 의미역	완전 음역한 후 해당 용어에서 유형이나 정체성을 나타내는 후부 요소를 대응어로 의미역하여 추가한 경우	한라산 Hallasan Mountain
	완전 음역 + 대응식 의미 (괄호 사용)	완전 음역 후 괄호 속에 대응식 의미역을 병기한 경우	죽 Juk (porridge)
	전부 요소 음역 + 후부 요소 대응식 의미역	단일어나 복합어를 둘로 나누어 개별성을 나타내는 전부 요소는 음역하고, 보편성을 나타내는 후부 요소는 대응어로 의미역한 경우	천황닭 the Cheonhwang chicken
	부분 음역 + (부분 대응식 의미역) + 부분 음역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닌 두 개 어휘가 결합된 용어(복합 구성 명칭)의 번역	제주항일운동 Jeju Hangil (Anti-Japanese) Movement
	완전 음역 + 대응식 의미역 + 설명식 의미역	완전 음역 뒤에 대응식 의미역과 설명식 의미역을 모두 나열한 경우	물회 Mul-hoe (Water Raw Fish) as it is prepared by pouring water and spices over fresh raw fish
	완전 음역 + 설명식 의미역(괄호 사용)	완전 음역 후 괄호 속에 설명식 의미역을 병기한 경우	불고기 Bulgogi (sliced and seasoned barbequed meat)
	대응식 의미역 + (∅)	도착어 문화의 유사한 어휘(대응어)로 번역한 경우	평만두국 Pheasant dumpling soup
자국화 ↓	대응식 의미역 + 설명식 의미역	대응식 의미역과 설명식 의미역을 병기한 경우	물옷 Diving Suit. This unique suit was used by Jeju's haenyeo (women divers) well ~
	설명식 의미역 + (∅)	한국어 용어를 의미 중심으로 설명하듯 번역한 경우	양념장 red chili-pepper paste and vinegar

않았다. 세 나라의 외래어 관련 표기 규정 링크 정보는 참고문헌에 제시하였다.

4. 의식주 문화 관련 용어의 번역 및 표기 양상 분석

이 장에서는 제주관광공사 사이트의 의식주 문화 관련 용어 40개를 분석하였다. 베트남어는 [베], 인도네시아어는 [인], 태국어는 [태]로 표시했다.

4.1 의복 문화 관련 용어

제주관광공사 사이트는 제주도의 독특한 의복 문화를 소개하며 갈옷, 우장, 물옷을 설명했다. 갈옷은 풋감으로 염색한 제주도 고유 의복이고, 우장은 새를 엮어 만든 비옷이며, 물옷은 해녀가 물질할 때 입던 것으로 머리에 쓰는 물수건, 상의인 물적삼, 하의인 물소중이로 구성됐다. ‘갈옷’의 경우 [베]와 [인]은 Galot⁸⁾처럼 완전 음역하여 이국화 전략을 사용했고, [태]는 전부 요소인 ‘갈(갈=kal)⁹⁾만 태국 문자로 음역하고 후부 요소인 ‘옷’은 태국어 단어 เสื้อผ้า로 대응 역했다. 해당 단어가 나온 문맥을 보면, 갈옷 제시 후 그 개념을 설명하는 텍스트가 이어져 있어 완전 음역이나 부분 음역으로 고유성을 보존하려 한 듯하다.

‘우장’은 세 언어 모두 완전 음역으로 제시했는데 이 역시 해당 단어 제시 후 뒤에서 뜻을 설명하기에 이국화 전략만 사용한 듯하다. 다만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Woojang이 아니라 Ujang으로 표기해야 하고, 태국어도 태국 왕립학술원의 한국어 음역 규정에 따르면 우장의 ‘우’는 ฎ가 아니라 ฎ로 표기해야 한다. 공식 표기를 따르지 않더라도 동일 언어 내 표기 방식은 일관돼야 하는데 사이트 내 번역어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물옷’과 그 물옷을 구성하는 물수건·물적삼·물소중이에 대한 번역은 언어마다 번역 전략이 달랐다. 물옷을 소개하는 맥락에서 [베]는 Mulot¹⁰⁾처럼 완전 음역하여 이국화 전략만을 적용한 반면, [인]은 Mulot(Pakaian Menyelam)처럼 완전 음역 후 괄호 속에 의미역을 추가하여 이해용이성을 높였다. 그러나 [태]는 ‘เสื้อผ้า=옷+물’¹¹⁾처럼 각 요소를 대응식으로 의미역하여 자국화 전략만을

8)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갈옷은 Garot처럼 음운 변화를 반영해서 표기해야 한다.

9) 태국 문자에 익숙지 않은 독자를 고려하여 로마자로 복원하여 표시했다.

10)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물옷은 Murot처럼 음운 변화를 반영해서 표기해야 한다.

11) 참고로 세 언어 모두 피수식어 다음에 수식어가 오는 것이 기본 어순이다.

사용했다. 단어 ‘물옷’을 제시한 후 예전에 해녀들이 입던 옷이라고 설명하는 동일한 맥락임에도 언어마다 번역 전략이 다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언어적·문화적·번역의 관습적 차이로 보기에선 동일 언어 내에서도 특별한 기준이나 이유 없이 비일관되게 전략이 사용되었다. 다시 말해, [베]는 물옷을 완전 음역하고, 그 물옷을 구성하는 물수건은 대응식 의미역으로, 물적삼과 물소중이는 완전 음역 후 후부 요소를 추가하는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인]은 물옷에 음역 정보를 제공했는데 물수건·물적삼·물소중이는 의미역으로만 제시했다. [태]는 4개 모두 의미역으로만 제시했지만, 앞서 언급한 ‘갈옷’은 동일하게 의복 범주에 속함에도 전부 요소 음역 후 후부 요소를 의미역했다. 이렇듯 유사 개념에 대한 동일 언어 내 번역 전략 적용의 비일관성은 독자의 이해를 오히려 방해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유사 범주의 경우 표준화되고 일관된 적용이 필요하다.

〈표 3〉 의복 문화 관련 용어의 번역 및 표기 양상

한국어	외국어	표기	의미 또는 로마자음	유형
갈옷	[베]	Galot		완전 음역
	[인]	Galot		완전 음역
	[태]	เสื้อผ้าดัล	옷+kal	전부 요소 음역+후부 요소 대응식 의미역
우장	[베]	Woojang		완전 음역
	[인]	Woojang		완전 음역
	[태]	จู้จั่ง	Ujang	완전 음역
물옷	[베]	Mulot		완전 음역
	[인]	Mulot (Pakaian Menyelam)	Mulot (옷+잠수)	완전 음역+대응식 의미역(괄호 사용)
	[태]	เสื้อผ้าน้ำ	옷+물	대응식 의미역
물수건	[베]	khăn nước	수건+물	대응식 의미역
	[인]	helm menyelam	헬멧+잠수	대응식 의미역
	[태]	หมวกกันน้ำ	모자+방수	대응식 의미역
물적삼	[베]	khăn Muljeoksam	천+Muljeoksam	완전 음역+후부 요소 대응식 의미역
	[인]	atasan	상의	대응식 의미역
	[태]	เสื้อกันน้ำ	옷+방수	대응식 의미역

물소중이	[베]	khăn Mulsojung	천+Mulsojung	완전 음역+후부 요소 대응식 의미역
	[인]	celana	하의	대응식 의미역
	[태]	เกงกั้นน้ำ	바지+방수	대응식 의미역

4.2 음식 문화 관련 용어

제주관광공사 사이트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음식인 흑돼지, 꿩, 말 요리를 비롯하여 물회, 전복 등 다양한 음식을 소개하고 있다. 음식 문화 관련 용어에 대한 세 언어의 번역과 표기는 도착어 문화권 독자들의 수용성을 고려한 자국화 전략과 이국성을 드러내는 이국화 전략이 사례마다 다양하게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베]는 다양한 전략을 사용했고, [인]은 완전 음역한 경우와 완전 음역 후 괄호 속에 의미역을 넣은 경우가 많은 반면, [태]는 대응식 의미역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언어별 특징, 번역 관습, 텍스트 맥락에 따라 여러 전략이 사용될 수 있겠지만 최소한 동일 언어 내 일관성은 확보돼야 하고, 언어가 다르더라도 유사한 의미 범주 내 항목에 대한 번역 방식은 일관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자국화 전략을 사용할 때 대응어 선택이나 상위어 사용 과정에서 원문과의 정보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한국 문화를 알리는 공공기관 사이트로서 이국화 전략을 통한 고유성 보존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래부터는 음식 관련 문화 용어를 6가지로 나누어 각 사례가 어떤 양상으로 번역됐는지 살펴보겠다.

4.2.1 빙떡과 멜젓

제주도 음식으로 소개한 빙떡은 세 언어 모두 완전 음역을 했는데, 본문에서 그 뜻이 설명되기 때문에 고유성을 보존하는 이국화 전략만 사용한 듯하다. 다만 [베]와 [인]에서 빙떡을 Bingddeok으로 표기했는데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Bingtteok이 맞고, [태]에서 빙떡의 ‘떡’은 *๓๓n*이 아니라 *๓๓n*이 태국 왕립 학술원의 규정에 맞다.

흑돼지 요리에 어울리는 음식으로 언급된 멜젓은 [베]와 [인]에서 완전 음역 후 붙임표나 쉼표 뒤에 ‘소금에 절인 멸치’처럼 설명을 추가했지만 젓갈임이 잘

드러나지 않았고, [태]는 완전 음역 없이 대응식 의미역으로만 대체하여 재료 및 제주어 고유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표 4〉 멜젓과 빙떡의 번역 및 표기 양상

한국어	외국어	표기	의미 또는 로마자음	유형
빙떡	[베]	Bingddeok		완전 음역
	[인]	Bingddeok		완전 음역
	[태]	빙ต๑ก	Bingtteok	완전 음역
멜젓	[베]	Mel-jeot - một cá com muối	멜젓-소금에 절인 멸치	완전 음역+설명식 의미역
	[인]	mel-jeot, yaitu ikan teri yang diasinkan	소금에 절인 멸치	완전 음역+설명식 의미역
	[태]	น้ำจิ้มปลา	액젓	대응식 의미역

4.2.2 쩡 요리

쩡 요리로 쩡토렴, 쩡메밀국수, 쩡만두국이 소개되었는데, [베]는 대응식 또는 설명식으로 의미역했고, [인]은 앞뒤 문맥에서 음식의 뜻이 소개되는 정도에 따라 완전 음역을 하거나, 완전 음역 후 대응식 의미역을 괄호 속에 추가하거나, 대응식 의미역만으로 제시했다. [태]는 대응역이 수월한 쩡메밀국수만 의미역하고, 쩡토렴은 설명식 의미역으로 제시하고, 쩡만두국은 소개하지 않았다.

한편, 제주도에서 쩡을 말려서 육포처럼 먹는다는 원문을 [인]은 의미역했고, [베]는 영어(jerky)를 혼용하여 의미역했으나 [태]는 구워 먹는다고 표현했는데 이는 오역으로 보인다. 쩡 요리가 흔치 않은 만큼 전체적으로 의미역 위주로 자국화 전략을 더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한국(또는 제주) 음식 문화의 고유성은 잘 드러나지 않았다.

〈표 5〉 쩡 요리 관련 음식의 번역 및 표기 양상

한국어	외국어	표기	의미	유형
쩡토렴	[베]	thái mỏng phần ức của chim trĩ ăn nóng như Shabu-shabu.	쩡 가슴살을 얇게 썰어 샤브샤브처럼 따뜻하게 먹음	설명식 의미역
	[인]	Kkwong-toryeom		완전 음역
	[태]	เนื้ออกไก่ฟ้าที่ทำเป็นน้ำจิ้ม	탕으로 만든 닭가슴살	설명식 의미역

평메밀 국수	[베]	hầm chim trĩ với mì	면과 함께 먹는 평짬	설명식 의미역
	[인]	Kkwong-memil guksu (mì gandum hitam burung pegar)	Kkwong-memil guksu(국수+메밀+ 평)	완전 음역+대응식 의미(괄호 사용)
	[태]	ก๋วยเตี๋ยวไก่	국수+닭	대응식 의미역
평 만두국	[베]	Súp chim trĩ	수프+평	대응식 의미역
	[인]	Sup pangsit burung pegar	국+만두+평	대응식 의미역
	[태]	없음		없음
육포	[베]	thịt bò jerky	소고기+jerky	대응식 의미역 *영어 혼용
	[인]	dendeng	육포	대응식 의미역
	[태]	สามารถกินดิบหรือย่าง	(생으로 또는) 구워서 먹을 수 있다	오역

4.2.3 말 요리

말 요리를 소개하면서 마육회를 [베]는 번역하지 않았고 [인]과 [태]는 의미 역했다. 그리고 마초밥의 경우 세 언어 모두 ‘스시(sushi)’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한국 음식을 일본 음식명을 활용하여 대응역한 것은 한국 문화의 고유성 보존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말을 탕수육으로도 해 먹는다는 원문을 번역할 때 [베]와 [인]이 완전 음역 후 설명을 덧붙이고 [태]에서 대응식 의미역한 것과 대비된다.

한편 마초밥과 (말) 탕수육의 번역은 제주관광공사 사이트의 영어 버전에서 영향을 받은 듯하다. 영어 버전에서 마초밥을 horse sushi로 번역하고 탕수육은 Tangsuyuk(sweet and sour meat)으로 번역했다. 이 밖에도 말을 갈비짬, 생구이, 불고기로도 먹는다는 원문을 번역하면서 [베]와 [인]은 영어 번역과 유사하게 번역하여 완전 음역 후 괄호 속에 의미역했다.¹²⁾ 한국어 원문 외 영어 번역 결과의 참조 정도가 기타 언어로의 번역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 번역 참조가 유용할 수 있겠으나 각 언어의 특징과 번역 관습을 고려하면서 한국 문화 고유성을 보존하는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12) 한편 [태]는 ‘말+짬’과 ‘말+구이’처럼 대응식으로 의미역했다.

〈표 6〉 말 요리 관련 음식의 번역 및 표기 양상

한국어	외국어	표기	의미 또는 로마자음	유형
마육회	[배]	없음	없음	없음
	[인]	daging kuda mentah	고기+말+날것의	대응식 의미역
	[태]	เนื้อม้าดิบ	고기+말+날것의	대응식 의미역
마초밥	[배]	sushi thịt ngra	Sushi+고기+말	대응식 의미역
	[인]	sushi daging kuda	Sushi+고기+말	대응식 의미역
	[태]	ม้าซูชิ	말+스시	대응식 의미역
(말) 탕수육	[배]	tangsuyuk (xào chua ngot)	Tangsuyuk(볶음+새콤달콤한)	완전 음역+대응식 의미역(괄호 사용)
	[인]	tangsuyuk (daging asam manis)	Tangsuyuk(고기+새콤달콤한)	완전 음역+대응식 의미역(괄호 사용)
	[태]	มาเผ็ยหวาน	말+새콤달콤한	대응식 의미역
(말) 갈비찜	[배]	galbijim (xuong sườn ngra hàm)	Galbijim(갈비+말+찜)	완전 음역+대응식 의미역(괄호 사용)
	[인]	galbijim (rebusan iga)	Galbijim(찜+갈비)	완전 음역+대응식 의미역(괄호 사용)
	[태]	มาฝั่ง	말+찜	대응식 의미역
(말) 구이	[배]	gui (thịt nướng)	Gui(고기+구운)	완전 음역+대응식 의미역(괄호 사용)
	[인]	gui (daging panggang)	Gui(고기+구운)	완전 음역+대응식 의미역(괄호 사용)
	[태]	มาย่าง	말+구이	대응식 의미역
(말) 불고기	[배]	bulgogi (thái lát và nướng)	Bulgogi(얇게 썰어서 구움)	완전 음역+설명식 의미역(괄호 사용)
	[인]	bulgogi (daging barbeque yang diiris dan dibumbui)	Bulgogi(썰어서 양념한 바비큐 고기)	완전 음역+설명식 의미역(괄호 사용)
	[태]	없음	없음	없음

4.2.4 회와 물회 요리

‘회’ 관련 번역 결과에서는 비일관성이 많이 발견되었다. 텍스트의 맥락이 보완한다 해도 같은 방식으로 먹는 음식들을 번역하는 방식이 일관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배]는회는 의미역¹³⁾하고, 돛회는 완전 음역하고, 갈치회는 ‘갈치’만 음역한 뒤 후부 요소인 ‘회’를 의미역했으며, 전복회는 전체를 대

13) gòi의 원래 뜻은 얇게 썬 고기 등을 가리키나 베트남에서 회를 가리킬 때 gòi로 쓰므로 대응식 의미역으로 보았다.

음식으로 의미역했다. [인]의 경우 갈치회는 ‘갈치’를 음역하고 ‘회’를 의미역했는데, 나머지 회, 돔회, 전복회는 전체 명칭을 완전 음역했다. [태]는 이들을 구별하지 않고 재료가 언급되는 맥락에서 ‘회’로 먹는다는 식으로 설명했다.

‘물회’의 경우, [베]와 [인]은 완전 음역했고 ‘소라물회, 자리물회, 한치물회, 해삼물회’처럼 재료명이 붙은 경우 재료가 도착어 문화권에 익숙하면 재료명 부분만 의미역하거나 상위어로 의미역하고, 생소하면 전체를 완전 음역한 듯하다. [태]는 물회를 대응식 의미역하여 신어를 만들었고 재료명은 모두 음역했다.

〈표 7〉 회와 물회 관련 음식의 번역 및 표기 양상

한국어	외국어	표기	의미	유형
회	[베]	gói	회	대응식 의미역
	[인]	hoe		완전 음역
	[태]	ปลาดิบ	회	대응식 의미역
돔회	[베]	Dom-hoe		완전 음역
	[인]	Dom-hoe		완전 음역
	[태]	없음		없음
갈치회	[베]	gói Galchi	회+Galchi	전부 요소 음역+후부 요소 대응식 의미역
	[인]	galchi mentah	갈치+날것	전부 요소 음역+후부 요소 대응식 의미역
	[태]	ปลาดิบ	회	대응식 의미역
전복회	[베]	gói bào ngư	회+전복	대응식 의미역
	[인]	jeon-bok-hoe		완전 음역
	[태]	กินหอยเป๋าหื้อเป็นดิบๆ	생으로 전복을 먹다	설명식 의미역
물회	[베]	Mul-hoe		완전 음역
	[인]	Mul-hoe (Ikan Mentah Air)	Mul-hoe(생선+회+물)	완전 음역+설명식 의미역(괄호 사용)
	[태]	ปลาดิบน้ำ	회+물	대응식 의미역
소라물회	[베]	Sora mulhoe		완전 음역
	[인]	mul-hoe siput hijau	Mul-hoe+소라	전부 요소 의미역+후부 요소 음역
	[태]	โซรา	Sora	전부 요소 음역+후부 요소 생략/누락

자리물회	[배]	Jarimulhoe		완전 음역
	[인]	jari-mul-hoe		완전 음역
	[태]	ปลาต้มน้ำจืด	회+물+Jari	전부 요소 음역+후부 요소 대응식 의미역
한치물회	[배]	Hanchi mulhoe		완전 음역
	[인]	mul-hoe cumi-cumi mitra.	Mul-hoe+오징어의 일종(mitra)	전부 요소 음역+후부 요소 대응식 의미역
	[태]	ฮันซี่	Hanchi	완전 음역 *물회 생략
해삼물회	[배]	Hái sâm mul-hoe	해삼+물회	전부 요소 의미역+후부 요소 대응식 음역
	[인]	mul-hoe timun laut	Mul-hoe+해삼	전부 요소 의미역+후부 요소 대응식 음역
	[태]	แฮซั่ม	Haesam	완전 음역 *물회 생략

4.2.5 전복과 오분자기

사이트에서 전복은 죽이나 뚝배기 등으로 먹는다고 언급했고, 전복의 일종인 오분자기와 오분자기 뚝배기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전복은 [배]와 [인]이 완전 음역 후 괄호 속에 의미역을 더했으며, [태]는 의미역했다. 오분자기 뚝배기의 경우, [배]는 뚝배기를 생략하고 오분자기만 음역하고 대신 괄호 속에 의미역을 더했는데, 이는 오분자기를 요리명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부적절한 번역이다. [인]은 Obunjagi Ttukbaegi (Sup Seafood)처럼 완전 음역 후 대응식 의미역을 추가했지만 다른 텍스트에서 sup seafood obunjagi로도 표현하여 동일 언어 내 비일관성을 보였다. [태]는 오분자기를 โอบุนจาดี(obunjaki)처럼 완전 음역하기도 했으나 요리인 오분자기 뚝배기는 번역하지 않았다.

〈표 8〉 전복과 오분자기 관련 음식의 번역 및 표기 양상

한국어	외국어	표기	의미	유형
전복회	[배]	gòi bào ngư	회+전복	대응식 의미역
	[인]	jeon-bok-hoe		완전 음역
	[태]	กินหอยเป๋าหื้อเป็นดิบๆ	생으로 전복을 먹다	설명식 의미역
전복죽	[배]	súp bào ngư	수프+전복	대응식 의미역
	[인]	juk (bubur)	Juk(죽)	대응식 의미역 *전복 생략
	[태]	โจ๊กหอยเป๋าหื้อ	죽+전복	대응식 의미역

오분자기 뜯배기	[베]	Obunjagi (Seafood Soup)		완전 음역+대응식 의미 (괄호 사용)
	[인]	Obunjagi Ttukbaegi (Sup Seafood)		완전 음역+대응식 의미 (괄호 사용)
		sup seafood obunjagi		완전 음역+후부 요소 대응식 의미역
	[태]	없음		없음

4.2.6 된장찌개와 삼계탕

제주의 주요 음식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대표적인 한국 음식인 된장찌개와 삼계탕도 언급되었다. 대표적인 한국 음식인 된장찌개는 고유성을 보존하는 이국화 전략이 필요해 보이나 세 언어 모두 의미역하는 자국화 전략을 사용했다. 오분자기를 된장찌개로도 해 먹는다는 맥락에서 ‘된장찌개’를 [베]는 장국, [인]은 된장 수프, [태]는 된장을 생략하고 단순히 ‘수프’로만 번역하여 된장찌개의 특징과 고유성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전복을 삼계탕에 넣어서도 먹는다는 맥락에서 삼계탕이 등장했는데 [베]는 닭국처럼 표현하고 [태]는 생략하여 [인]에서 완전 음역 후 설명을 더한 것과 달랐다.

〈표 9〉 된장찌개와 삼계탕의 번역 및 표기 양상

한국어	외국어	표기	의미	유형
된장찌개	[베]	canh tương	국+장	대응식 의미역
	[인]	sup doenjang	수프+된장	전부 요소 음역+ 후부 요소 대응식 의미역
	[태]	ซุป	soup *영어 외래어	대응식 의미역
삼계탕	[베]	canh gà	국+닭	대응식 의미역
	[인]	samgyetang(sup ayam dengan ginseng)	Samgyetang(인삼 넣은 닭고기 수프)	완전 음역+설명식 의미역 (괄호 사용)
	[태]	없음		없음

4.3 주거 문화 관련 문화 용어

제주관광공사 사이트에는 제주도의 독특한 주거 문화 관련 용어로 초가, 돛통시와 통시, 밖거리와 안거리, 정낭과 정주목, 올레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10>과 같다.

제주의 초가는 세 언어 모두 완전 음역했으나 [베]와 [인]은 완전 음역 뒤에 ‘짚으로 된 지붕이 있는 집’이라는 설명을 괄호로 추가하여 이국화 전략과 자국화 전략을 모두 사용했다. 돛통시와 통시는 제주도에서 돼지우리과 사람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하나로 합쳐 놓은 공간인데 돛통시는 [베], [인], [태] 모두 완전 음역하여 이국화 전략을 사용한 반면, 거의 같은 뜻을 가진 통시를 [베]는 화장실로 대응식 의미역했고 [인]은 부분 의미역과 괄호를 사용하여 자국화 전략을 사용했다. 유사 의미를 지닌 단어이지만 언어 내 및 언어 간에서 비일관성을 보여 통일성 있는 지침에 따른 번역이 필요하다. 더구나 돛통시와 통시는 보통의 화장실이 아닌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성이 높은 공간이므로 의미역하는 과정에서 일반 화장실로 번역됨에 따라 독자의 이해는 쉽겠으나 제주 문화로서의 고유성이 상실되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제주도의 독특한 주거 개념인 밖거리와 안거리의 경우, [베]는 대응식 의미역을 사용하여 밖거리는 부수적인 집(*nhà phụ*), 안거리는 주가 되는 집(*nhà chính*)으로 번역하여 독자가 쉽게 이해하게끔 자국화 전략을 사용했으나 [인]은 전체 음역을 하여 이국화 전략만을 사용했다. [태]는 특별한 용어 번역 없이 내용적 설명으로 대체하여 자국화 전략을 적용했다.

정낭은 대문 역할을 하는 나무 기둥을 말하는데 [인]과 [태]는 완전 음역했고 [베]는 완전 음역한 뒤 문을 뜻하는 ‘*cổng*’을 추가하여 이해용이성을 높이고자 했다. 정낭을 놓을 수 있게 만든 두 기둥인 정주목의 경우 [인]과 [태] 모두 완전 음역했다. 한편 올레는 집에서 큰 길까지의 골목길을 일컫는 제주 문화 용어로 [베], [인], [태] 모두 완전 음역하여 이국화 전략을 사용했다.

이렇듯 [베]에서는 완전 음역, 대응식 의미역, 음역과 부분 의미역 등 다양한 전략이 사용되었고, [인]에서는 완전 음역과 괄호를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했으며, [태]는 완전 음역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언어권마다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으나 특히 [베]의 경우 일관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제시되어 독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수정될 필요성이 크다. 또한 [베]와 [인]의 음역은 자국의 공식 규정이 아닌 한국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는 듯했으나 일부 오류가 발견되었으며, [태]의 경우 태국 왕립학술원 표기를 거의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표 10〉 주거 문화 관련 용어의 번역 및 표기 양상

한국어	외국어	표기	의미 또는 로마자음	유형
초가	[베]	Choga (Nhà có mái tranh)	Choga(초가 지붕이 있는 집)	완전 음역+설명식 의미역 (괄호 사용)
	[인]	Choga (Rumah Beratap Jerami)	Choga(집+지붕+초가)	완전 음역+설명식 의미역 (괄호 사용)
	[태]	ໂຂດາ	Choga	완전 음역
돛통시	[베]	Dottongsi		완전 음역
	[인]	Dottongsi		완전 음역
	[태]	ดตทงซี	Dottongshi	완전 음역
통시	[베]	nhà vệ sinh	화장실	대응식 의미역
	[인]	tongsi (toilet)		완전 음역+대응식 의미 (괄호 속 영어)
	[태]	없음		없음
밖거리	[베]	nhà phụ	부수적인 집	대응식 의미역
	[인]	bakgeori		완전 음역
	[태]	없음		없음
안거리	[베]	nhà chính	주가 되는 집	대응식 의미역
	[인]	Angeori		완전 음역
	[태]	없음		없음
정낭	[베]	Cổng Jeongnang	문+Jeongnang	완전 음역+후부 요소 대응식 의미역
	[인]	Jeongnang		완전 음역
	[태]	จองนั่ง	Jeongnang	완전 음역
정주목	[베]	없음		없음
	[인]	jeongjumok		완전 음역
	[태]	เสาจองจุมก	기둥+Jeongjumok	완전 음역+후부 요소 대응식 의미역
올레	[베]	olle		완전 음역
	[인]	olle		완전 음역
	[태]	โอลเล	Olle	완전 음역

5. 결론

한국 문화 관련 용어의 번역 및 표기에 관한 연구 및 관련 지침 제정은 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급증하는 아세안 국적의 입국자들을 고려하면 번역 지침의 대상 언어가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실태 조사

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사이트 중 아세안 언어로 번역한 페이지를 제공하는 제주관광공사 사이트에서 한국 의식주 문화 관련 용어를 아세안 3개 언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태국어)로 번역 및 표기한 양상을 조사, 분석하였다.

특히 세 가지 연구 질문에 따라 분석하였는데, 첫 번째 연구 질문인 ‘한국 의식주 문화 관련 용어의 번역 및 표기 과정에서 사용한 번역 전략이 적절했는가’를 분석한 결과, 한국 문화의 고유성을 보존하는 이국화 전략과 도착어 문화권을 고려한 자국화 전략을 텍스트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양한 전략이 맥락상 부적절한 경우도 있었는데, 음역 없이 의미역만 제시하여 한국 문화의 고유성을 드러내지 않았거나 반대로 음역만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용이성을 저해한 결과도 있었다. 따라서 텍스트 맥락과 번역 전략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이 필요하다. 두 번째 연구 질문은 ‘이 용어들이 각 언어 내에서 일관되게 번역 및 표기되었는지’이다. 분석 결과, 최소한 동일 언어 내 유사 주제 용어들 사이에서는 일관성이 높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가 다수 발견되었다. 또한 언어별 특징이나 번역 관습이 다르겠지만 세 언어 간 번역과 표기도 어느 정도 일관성을 높이는 공통 지침이나 기준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 세 번째 연구 질문은 ‘이 용어를 베트남어와 인도네시아어의 로마자나 태국어의 태국 문자로 음역 표기할 때 공식적인 표기 규정을 준수했는가’를 분석하는 것인데, 세 언어에서 참조 가능한 공식적 표기법이 있음에도 이를 엄격히 따르지 않았고, 동일 단어도 다른 페이지에서 다르게 번역하거나 표기하는 예도 있었으므로 전체적으로 해당 사이트의 번역 결과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 발견된 오류나 비일관성을 해결하거나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번역 및 표기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고, 특히 기존의 영·중·일어 외 언어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한국 문화 관련 용어의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번역 양상을 점검하여 관련 연구 및 지침 마련의 기초를 제공한 시의적 연구라 할 수 있으며 실질적 필요성에 비해 연구가 미진했던 아세안 언어의 번역 및 표기 양상을 다룸으로써 희소성 차원에서도 의의가 있다. 다만 한 사이트를 대상으로 특정 주제(의식주 문화)에 관한 용어만을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분석 대상 주제를 확대하고, 번역 관련 오류(표기상 오류, 번역상 오류, 비일관성 등)를 심층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주제와 맥락에 따라 어떤 번역 전략과 유형이 실제 모국어 화자들에게 유의미한 수준으로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수용성 조사 연구 역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인경 (2013) 「문화소 번역 방법 연구- 제주도 관광안내텍스트를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 25: 37-59.
- 김재희 (2008) 「문화 관련 어휘(culture-bound terms) 번역 방법 연구: 코리아나 아랍어 번역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0(1): 25-42.
- 김혜림 (2019) 「지난 20년간 ‘문화용어’에 대한 국내 통번역 연구 고찰」, 『통번역학연구』 23(4): 81-111.
- 김혜림, 강경이, 신다영 (2019) 「관광문화 용어 중국어 번역 수용성 연구」, 『번역학연구』 20(3): 7-35.
- 김혜림, 신지선, 조영주 (2014) 『문화용어 번역 실태조사 및 번역 방안 연구』, 국립국어원.
- 김혜림, 장애리, 강려영 (2016) 「문화 용어의 중국어 번역 실태 조사 및 번역 방안 연구」, 『T&I Review』 6: 49-73.
- 문화체육관광부 (2020) 『2020년 외래관광객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22) 『제4차 국어 발전 기본 계획』, 문화체육관광부.
- 심보경 (2018) 「공공언어 표기실태 연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표지 로마자·영문표기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58: 27-49.
- 양병선 (2020)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에 따른 영문 관광표기 연구: 전주시 영문 관광안내 소책자를 중심으로」, 『언어학』 28(3): 17-37.
- 양병선, 김셋별 (2019) 「전북지역 관광명소명 자동번역시스템 영문표기에 대한 연구」, 『언어학』 27(2): 59-85.
- 이근희 (2003) 「문화와 밀접한 상관어(相關語)의 번역 전략」, 『번역학 연구』 4(2): 5-27.

- 이상빈 (2017) 『생각을 키우는 번역학 수업』, 서울: HUINE.
- 이지민 (2015) 「전통 영상번역과 팬자막 비교 연구—문화 관련 어휘 번역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9(2): 135-158.
- 임순정 (2014) 「해외홍보물 번역 지침 수립을 위한 한불 번역 실태 조사: 문화 고유어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6(1): 175-202.
- 정호정 (2008) 「번역된 문화텍스트의 정보성 평가와 로마자 표기 방식의 문제점」, 『통역과 번역』 10(1): 161-188.
- 정호정, 최소희 (2020) 「번역표기 훈령과 공공번역 표준화 정책—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이후 번역 실태 연구—」, 『영미연구』 48(1): 157-190.
- 조정민 (2021) 「한국 해외 홍보 매체에 나타난 문화소 번역 전략 연구—코리아넷 아랍어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외국어교육』 28(2): 189-208.
- 최병진 (2010) 「한-독 번역에서 문화 고유적 어휘의 번역 유형과 문제에 대한 고찰」,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27: 103-129.
- 최희섭 (2008) 「영어 관광 안내판의 번역 오류: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9(2): 217-240.
- Aixelá, Javier F. (1996) 'Culture-Specific Items in Translation', in Roman Alvarez Rodríguez and Maria Carmen Africa Vidal (eds) *Translation, Power, Subversion*, Frankfurt: Multilingual Matters, 52-78.
- Baker, Colin (1992) *Attitudes and Language*,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Ballard, Michel (2001) *Le nom propre en traduction: anglais-français*. Paris: Ophrys.
- Diaz-Cintas, Jorge and Aline Remael (2007) *Audiovisual Translation: Subtitling*,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 Newmark, Peter (1988) *A Textbook of Translation*, New York: Prentice-Hall International.
- Venuti, Lawrence (1995)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New York: Routledge.

<세 나라의 외래어 관련 표기 규정>

베트남의 외래어 관련 표기 규정, 2022년 9월 4일 검색. Available at <https://law>

net.vn/vb/quyet-dinh-07-2003-qd-bgddtquy-dinh-tam-thoi-viet-hoa-ten-rieng-sach-giao-khoa-c67c.html

인도네시아의 외래어 관련 표기 규정, 2022년 9월 4일 검색. Available at <https://ejaan.kemdikbud.go.id/eyd/unsur-serapan/umum/>

태국 왕립학술원의 한국어 표기 규정, 2022년 9월 4일 검색. Available at http://legacy.orst.go.th/?page_id=617

[Abstract]

**A Study on Vietnamese, Indonesian, and Thai Translations of
Korean Culture-bound Terms for Food, Clothing, and Housing
— Focusing on the Jeju Tourism Organization Website**

Duyong Lee*, Jimin Park**, Sehwa Hong** & Jung Hee Lee**
(Korea University*, Kyung Hee University**)

This study is to suggest a basis for preparing foreign language translation guidelines by investigating how Korean culture-bound terms were translated into Vietnamese, Indonesian, and Thai. To this end, translated culture-bound terms of the Korean clothing, food, and housing were extracted from the Jeju Tourism Organization website, and the translation strategies, consistency, and compliance with official orthography were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diverse translation strategies and types were applied to different languages but were inconsistent within each language, and the official orthography was not strictly complied with either. Therefore, a review or proofreading of the site is required, and official foreign language translation guidelines for these languages should be established for accurate and consistent reference. Follow-up studies are suggested such as a survey on the acceptability of native speakers.

Keywords: Korean culture-bound terms, foreign language translation guideline, translation strategies, consistency, orthography

주제어: 한국 문화 관련 용어, 외국어 번역 지침, 번역 전략, 일관성, 표기법

이두용(1저자, <https://orcid.org/0000-0002-5153-7364>)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toulong@korea.ac.kr

관심분야: 대조언어학, 번역학, 코퍼스, 한국어교육

박지민(공동저자)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

jesijimin@khu.ac.kr

관심분야: 대조언어학, 번역학, 코퍼스, 한국어교육

홍세화(공동저자)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생

hongsehwa@khu.ac.kr

관심분야: 대조언어학, 번역학, 코퍼스, 한국어교육

이정희(교신저자, <https://orcid.org/0000-0001-8482-1065>)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교수

iiekor@khu.ac.kr

관심분야: 대조언어학, 번역학, 코퍼스, 한국어교육

논문투고: 2022년 8월 7일

1차심사 완료: 2022년 8월 26일

2차심사 완료: 2022년 9월 9일

게재 확정: 2022년 9월 19일